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 성수산 산림휴양관 정식 개장

임실군, 본관 지상 3층 규모 총 12실에 별관 5실 등 운영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건국 설화를 담은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자연휴양림의 산림휴양관이 정식 개장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을 마친 성수산 산림휴양관이 시설보완 등 일 년여 간의 준비 끝에 오는 11일부터 손님맞이를 시작한다. 성수산 산림휴양관은 기존 개인 소유의 성수산 자연휴양림을 매입하여 노후 시설물들을 철거 후 산림휴양관 본관 신축 및 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정식 운영체계를 갖춘 후 오는 10월 11일 정식 개장한다.

산림휴양관 본관은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세미나실과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 2개와 2층과 3층 각각 5실씩 총 12실로 구성되어 있다. 별관에는 최대 8명~10명 수용 가능한 객실도 보유하고 있어 단체 이용객들에게도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양관 예약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또한, 군은 국·도·군비로 총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숲속의 집 5동, 야영지일센터 1동, 야영사이트 10개소 등을 조성 완료했다.

성수산 숲속야영장은 국내에는 보기 드문 세모형 집과 매립형 야영 지원센터다.

건축 형태에 따라 이름 붙여진 세모의 집과 네모의 집은 각각 23평과 15평으로 최대 6인까지 수용 가능하다. 야영 시설은 캠핑러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데크 4면, 책석 6면으로 조성했으며, 야영지원센터에 샤워장과 개수대 등 야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숲속야영장 5동(장애인 이용 1동 포함)은 건축물대장 등재가 완료된 상태로 전문휴양업 등록, 보험 가입 등의 절차 및 운영팀의 시험가동이 완료되는 대로 이용객들에게 정식 개방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고려 태조 왕건 및 조선 태조 이성계가 기도를 드려 왕이 됐다는 건국 설화를 지닌 성수산을 찾는 방문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성수산에서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어 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성수산의 좋은 기운을 얻어 원하고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동산에 사계절 힐링 숲 조성

순창군, 생활밀착형 숲 조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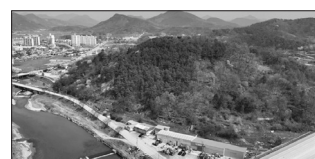
순창군이 10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대동산에 대규모 힐링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심 속 자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동산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며, 이달부터 내년도 3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의 핵심은 다양한 종류의 식재를 통한 사계절 경관 조성으로, 밤나무 276주, 소나무 18주, 불두화 1,011주, 배롱나무 227주 등을 심어 계절마다 변화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조성도 이번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700m에 달하는 새로운 산책로가 조성되며, 이는 기존의 숲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편안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또한, 산책로를 따라 쉼터, 편의시설, 덩굴 게이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것이며, 내년도 3월 완공 후 순창군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주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대동산 생활밀착형 숲이 군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나아가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명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19회 순창장류축제' 11~13일 개최... 볼거리·즐길거리 가득

맛의 고장 순창군에서 오는 11일 '제19회 순창장류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순창고추장만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제19회 순창장류축제 포스터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순창의 전통 장류 문화를 재해석해 관광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고추장 명인과 기능사의 지도 아래 자신만의 고추장과 된장을 만들어보는 특별한 체험부터, 조선 시대 임금님께 진상되던 순창고추장의 역사적 가치를 재현하는 화려한 진상행렬 퍼레이드까지 준비되어 있다.

이번 축제의 백미는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해 가래떡으로 새끼 꼬듯 꼬아 순창고추장만속마을이 생겨난 해를 기념하는 '발효나라 1997'을 완성하는 과자 축제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또한, 순창의 특산물 한자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와 함께,

빨간 옷을 입고 오면 민속마을 내 상가에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컬러 마케팅 이벤트도 진행된다.

축제의 밤은 더욱 화려해진다. DJ&EDM(전자음악) 불빛쇼 등 젊은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순창의 밤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외로, 이번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 할 화려한 공연 라인업도 관심을 모은다. 백지영, 부활, 박서진, 김태연, 나미애, 범진, 윤리원오브, 치타 등 트로트부터 발라드, 록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가을밤을 후끈 달굴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순창장류축제는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도입해 친환경 축제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갈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순창장류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우리 순창 장류의 우수성과 전통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무대"라며 "가을의 정취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마련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노암동, 기초생활 수급 가구 대상 확인 조사

남원시 노암동은 남원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받고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수급자 105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과 관계가 단절된 기초생활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결정 이후에 수급자의 자격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공정하게 복지급여

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노암동은 105가구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고, 특히 고령과 장애로 직접 서류 제출이 어려운 대상자는 1일 1가구를 찾아가는 소통 행정으로 직접 자택을 방문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차미화 노암동장은 "이번 조사는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구를 적극 보호하고 그들이 놓치고 있는 복지 혜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 틈새없는 촘촘한 복지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실무위킹그룹 회의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학습관 분관에서 제3차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실무위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 서비스 연계·조정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동 개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기구로, 회의 안건별로 보건·복지·보육(교육) 분야의 실무자 및 전문가를 분야별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남원경찰서,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원시정신건강증진센터, 남원하늘중학교, 남원시여성가족과 아동학대담당자, 남원시장 애인종합복지관 등 관내 아동복지기관 실무자가 직접 참석, 대상 아동에 대한 주 사례관리 기관을 정하고, 변화 점검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면서 아동통합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도 토론했다.

남원시 김현옥 여성가족과장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속적



인 회의를 운영해 기관간 서비스 중복을 피할 방침"이라며, 지역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고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